

볼링계 돌부처…“남친 사귈시간 없어요”



강혜은 선수 수상 내역

▲ 대통령배 전국시도 볼링대회=여자 일반부 3인조, 5인조, 개인종합 금메달

▲ 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3인조 2위, 5인조 2위, 개인종합 1위

▲ 광주실업연맹전=3인조 1위, 5인조 1위, 개인종합 3위 마스터즈 3위

▲ 체육회장배 볼링대회=3인조 3위, 5인조 2위

▲ 전국체육대회=개인전·5인조·마스터즈 1위

전국체전 여자 볼링 3관왕 광주 벨인퍼컴 강혜은 선수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텐판 볼링장.

지난 10월에 끝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자부에서 4개종목을 훨씬 넘는 전사 전부 후무한 기록을 작성한 광주 벨인퍼컴 여자 볼링팀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함성이 볼링장을 쪄렁쩌렁 울린다.

지난 10월에 끝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자부에서 4개종목을 훨씬 넘는 광주가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벨인퍼컴 여자 볼링팀은 휴식을 취해도 될 법 하지만 이지영 감독의 지도 아래 훈련에 여념이 없다.

그중 160cm에 52kg의 자그마한 선수가 힘찬 투구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주인공은 이번 체전에서 3관왕에 오른 강혜은(22).

올 전국체전 성과는 벨인퍼컴 선수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룬 기적같은 결과였지만 강혜은의 뛰어난 실력을 대해서 팀 동료들도 염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최고임을 인정해준다.

팀의 맏언니이자 주장인 김여진(28)은 “혜은이가 시즌 대통령배 3관왕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팀 티더 역할을 했다”고 칭찬이다.

강혜은은 “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룬 결과인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 쓰쓰럽다”고 얼굴을 붉힌다.

웃기 없고 내성적인 강혜은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충남 아가씨. 천안 서여중 2학년 때 친구들과 우연히 볼링장을 찾았다가 볼링과 인연을 맺게 됐다.

평소 합기도장을 다니며 팔 훌린 후 사위하면서 느끼는 상쾌함에 매료돼 운동을 좋아했던 강혜은

은 중2학년 때 볼링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3, 고1학년 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착실히 기량을 닦아온 강혜은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대표 선발전에서 상위권에 포진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

강혜은은 “이때부터 제가 볼링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며 “고교때 임명구 코치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으로 볼링에 대한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고3때 협회장기 개인전과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강혜은은 한국체육대학에 진학하면서 상비군에 선발되고, 3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면서 최정상의 플레이어로 각광받게 된다. 평소 말이 없고 게임에 임했을 때 표정변화가 없어 다른 선수들이 함께 플레이를 하면 주눅이 든다고 할 정도로 강혜은은 볼링계의 ‘돌부처’로 통한다.

지난해 도하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퍼스트트리트를 기록해 기업을 도하기도 했던 강혜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고지가 아닌 광주 벨인퍼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강혜은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벨인퍼컴 조종국 사장님의 열정에 감동했고, 운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광주에 등지를 틀게 된 강혜은은 광주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최고의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음식도 좋고, 인심도 좋고, 무엇보다 운동시설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갖춰져 다른 생각없이 볼링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지영(43) 벨인퍼컴 감독을 만나 자신만의 볼링을 꽂아았다. 강혜은은 “이 감독님은 선수들의 마음을 너무 잘 해아린다”며 “지나친 간섭이 아닌 각 선수들의 장·단점을 최대한 키워주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제 기량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은은 이제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서슴

없이 말한다.

강혜은은 “기회가 된다면 제2의 고향인 광주에서 선수생활을 꾸준히 하고 싶은게 욕심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국의 수많은 여자 실업팀 불러 중 레인을 읊는 감각이 최고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강혜은의 목표는 오는 2010년 아시안게임과 2009년 세계선수권 제2회이다. 또 시즌 이룩한 전국체전 3관왕을 내년에도 이루고 싶다.

그래서 강혜은은 올 겨울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릴 것에 대해 스스로에 다짐하고 있다.

강혜은은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시즌 보다 멀지 않고 더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만 할겁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결

과는 따라오지 않겠나”고 자신했다.

초등학교부터 익힌 합기도가 공인 2단인 강혜은은 피아노와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여성 사업가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제관련 공부를 해 여성 실업가가 되고 싶어 한다.

볼링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는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는 강혜은은 “그렇지만 상상하고 유머러스한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는다.

올 겨울 웨이트를 통해 좀 더 파워 넘치는 구질을 구사하고 싶다는 강혜은의 2008년이 기대된다.

/최초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왼쪽부터 김여진, 권혜미, 윤희여, 강혜은, 흥수연, 김양희선수, 이지영 감독.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

오늘보다 내일 위해 살아요

2009 세계선수권 제2회 목표

미래의 꿈은 당당한 사업가